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의 탐색*

김 현 수

최 연 실[†]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전국다문화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 총 58,072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상담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능력 수준도 중간 수준이었다. 사회적 지원이 한국인, 모국인 모두 2명을 넘지 않았고, 배우자, 자녀,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른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선족, 중국, 일본 출신의 여성들은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이 낮았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 여성들은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연령이 어리고, 본인의 학력이 높고, 배우자의 학력이 낮고, 결혼지속년수가 짧고, 자녀가 많고, 배우자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을 경우,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낮고, 사회적 지원으로 한국인의 수가 적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불만족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가족상담, 상담 필요성 인식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최연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Tel : 02-2287-5317, E-mail : yschoi@smu.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현재 한국사회는 다양한 민족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 남성의 결혼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영옥, 임진숙, 정상녀, 2008).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에는 결혼이주 여성과 유학생의 증가로 한국사회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의 수가 1,002,742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기에 이르렀다(법무부, 2011).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자의 증가는 1990년 이전에는 통일교 등 종교로 인한 유입에 기인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국내·외 경제적 상황 및 인구 이동의 증가, 외국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혼인 수급의 불균형 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0년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아내와 한국남성의 결혼은 외국인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혼과 비교해 볼 때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1).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속해 있는 다문화가족은 의사소통의 부재, 문화의 차이, 사회적 편견, 가족 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은 가정폭력, 이혼, 가출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적응은 현재 한국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설

동훈 외, 2005). 이들 가족에서 다양한 문제의 발생원인 중 하나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자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져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남편의 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한다(김오남, 2006; 양순미, 2006; 윤형숙, 2004).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적응상의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기보다는 아는 만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냥 당하거나 참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

다양한 가족문제와 한국사회에서의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건강은 위협되고,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본인만의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족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주은선, 이현정, 2010).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는 2004년 138,932건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 116,858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은 2004년 1,567건에서 2009년까지 8,300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7,904건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다문화 인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최근에는 다문화 인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교육적 지원방안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10).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

여성과 그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6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20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개인 및 가족상담, 자조집단 운영이 필수사업으로 실시되고 있고, 그 외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정윤, 2009).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이용자는 1,234,670명으로 2009년 대비 168%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또 다른 기관으로는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의 지속화와 가속화를 막기 위해 그들의 인권 보호와 상담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가 있다. 이주여성긴급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주로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초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법률정보 안내, 피해여성 보호 시설 연계, 의료·법률·검찰·경찰 서비스 연계, 인터넷 사이버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이용자는 2011년 8월 4,441건으로 2007년 대비 208%로 증가하였다(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010).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이 두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중 상담의 필요성과 절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상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 그

들이 한국사회에 안착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으로도 눈을 돌려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은 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방향 중 다문화가족 내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최연실, 2011), 이들의 적응상의 여러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수요조사 연구에서 다수가 국제결혼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혀(이선주, 양애경, 장미혜, 최현미, 송성실, 2008),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선상에서 상담사업을 정책적인 필수사업으로 포함시켜 왔다(강기정, 강복정, 이무영, 2011; 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박정윤, 2009; 이운정, 2010; 장명선, 장은애, 2010).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사업 지원은 체계적인 연구에 기반 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설정 이후 시도되었다기보다는 주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 주도의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의 의미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까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과 관련된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었다는 사실에도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

실태조사나 정책관련 연구물을 제외하고 2008년까지의 상담현장에서 벌어지는 상담활동을 다룬 연구들을 포함한 다문화상담연구의 현황을 보면, 그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국제결혼이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국제결혼 가정으로만 이루어진 연구는 30건에 불과하였다(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10). 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김희정, 2010; 박정운, 2009; 오세걸, 2010), 다문화상담자의 문화적 인식이나 역량과 그에 대한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노충래, 2011; 송기범, 2010; 주은선 외, 2010), 그리고 한국적 다문화상담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강기정, 이무영, 강복정, 2011; 송미경, 2008; 양승민, 2008; 한재희, 2011)이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과 같은 인권문제의 증가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기관에서 필수사업으로 상담사업을 포함시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위한 가족상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경험적인 연구 자료에 기반 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극히 소수의 연구(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최연실, 2011)를 제외하고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 서비스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부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성공적이고 적절한 가족상담 서비스의 제공은 이들의 가족 문제 해결과 사회 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이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의 요인들을 보면,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출신국, 연령, 연령차, 결혼기간, 학력, 자녀수, 취업 여부, 종교, 거주지역, 자녀수, 한국어 능력, 국제결혼 경로, 소득 수준 등(김연수, 2007; 김오남, 2006; 서해정, 김형모, 2009; 설동훈 외, 2005; 송미경, 2008; 양순미, 2006; 양순미, 정현숙, 2006)이, 특정변인들로는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남편과의 여가시간 공유 여부, 가정폭력 경험 유무,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김연수, 2007; 박정숙, 박옥민, 김진희, 2007; 양순미, 2006)이 다루어져 왔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남성과 만나 가족을 이루고 결혼중개업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나 적응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과 문제해결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들, 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국제결혼 경로, 한국어 능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한국사회에서 거의 처음으로 관계를 맺고 지지체계로 작용할 수 있는 배우자 등 가족관계가 중요함을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혼적응이나 문제해결과 관련되는 변인들은

결혼이나 가족생활에의 부적응이나 어려움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인 가족상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들은 검토해보면, 위에서 언급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결혼생활 적응 수준, 삶의 만족도, 부부 갈등, 결혼의 질, 결혼 만족도, 지원서비스 만족도 등을 살펴본 연구들(김연수, 2007; 김오남, 2006; 김희정, 2010; 서해정, 김형모, 2009; 설동훈 외, 2005; 송미경, 2008; 양순미, 2006; 양순미, 정현숙, 2006)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이나 가족문제로 상담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면 여기에는 결혼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연관되어 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아울러 그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상담에 접근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이것 또한 그들이 가족상담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인식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혼이주여성 관련연구에서는 가족상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고, 이루어진 연구들도 가족상담과 연관해서는 단편적인 요인들만을 다루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선행연구결과들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0)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축으로 정부 3개의 중앙 부처가 주관한 전국적 규모의 대단위 조사로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당히 포괄적인 변수들을 다루었다. 이 조사에서는 이전 연구

들을 아우르는 다문화가족의 전반적인 사항들, 출신국, 연령, 응답자와 배우자의 학력 수준, 직업관련 사항,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혼인 상태, 결혼지속년수, 응답자와 배우자의 결혼 횟수, 배우자를 만난 방법, 자녀관련 사항, 원가족과의 사항, 의논 상대, 여가취미 생활에 관련된 사항, 사회적 지원서비스 관련 효과와 필요성 인식 등이 포함되어 다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문화가족을 본격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대규모조사로서의 성격과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연구문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발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상담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가 가족상담의 필요성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향후 결혼이주성과 그 가족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상담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가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축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공동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009년 7월 21일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 각 다문화가정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에 기초한 전국다문화 가족수 154,333가구 중 실태조사를 통한 현지 조사원으로부터 확인된 13,702가구에서 남성 4,275명, 여성 69,394명으로 총 73,669명에 대하여 설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남성과 결혼 외의 유학, 취업, 친척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15,597명을 제외한 58,07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은 가족상담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것으로 “귀하는 가족상담 및 교육이 얼마나 필요합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표현되었다. ‘대체로 필요하다’ 1점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출신 국가,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배우자와의 나이차,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학력,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취업 여부, 결혼지속기간, 자녀수, 배우자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를 만난 방법, 경제적 수준이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0)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 의도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출신국가는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기타(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대만, 몽골, 태국)로 구분하였고,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는 연하, 동갑, 1세-9세, 10세-19세, 2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지속기간은 5년 이하, 5년-9년, 10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100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간격으로 ‘300만원 이상’까지 구분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의 취업 여부는 ‘아니오’와 ‘예’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동거하지 않음’과 ‘동거함’으로 분류하였고, 배우자를 만난 방법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종교기관을 통해서’, ‘스스로’로 구분하였다. 자녀수는 ‘0명’에서 ‘3명’까지로 나누었다.

한국어 능력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항들로서, “귀하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8,072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출신국가	조선족	18,691(32.2)	결혼 지속 기간	5년이하	10,198(17.6)
	중국	7,629(13.1)		5년-9년	27,046(46.6)
	베트남	18,330(31.6)		10년-14년	8,159(14.0)
	필리핀	5,499(9.5)		15년 이상	12,669(21.8)
	캄보디아	3,085(5.3)	자녀수	0명	18,671(32.2)
	일본	1,845(3.2)		1명	22,106(38.1)
	기타	2,993(5.2)		2명	10,709(18.4)
		3명 이상		2,529(4.4)	
연령	20대	20,095(34.6)	무응답	4,057(7.0)	
	30대	19,463(33.5)	배우자를 만난 방법	결혼중개업을 통해	19,327(33.3)
	40대	13,228(22.8)		가족 또는 친척 소개로	14,165(24.4)
	50대 이상	5,286(9.1)		친구 또는 동료 소개로	11,042(19.0)
		종교기관을 통해		5,006(8.6)	
학력	초등학교이하	5,820(10.0)	스스로	5,132(8.8)	
	중학교	17,012(29.3)	기타	1,492(2.6)	
	고등학교	24,324(41.9)	무응답	1,908(3.3)	
	대학이상	10,326(17.8)	나이 차이	연하	1,856(3.2)
	무응답	590(1.0)		동갑	1,431(2.5)
		10세 이하		15,828(27.3)	
		10세-19세		24,691(42.5)	
		20세 이상		14,266(24.6)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068(5.3)	배우자 부모와 동거여부	무	37,950(65.3)
	100~200만원 미만	9,848(17.0)		유	17,870(30.8)
	200~300만원 미만	21,536(37.1)	무응답	2,252(3.9)	
	300만원 이상	13,206(22.7)	배우자의 취업여부	아니오	7,056(12.2)
	무응답	10,414(17.9)		예	46,923(80.8)
		무응답		4,093(7.0)	
취업 여부	아니오	26,419(45.5)	배우자의 학력	초등학교 이하	4,069(7.0)
	예	30,633(52.8)		중학교	9,866(17.0)
	무응답	1,020(1.8)		고등학교	27,937(48.1)
상담 유무	무	34,102(58.7)		대학 이상	10,768(18.5)
	유	16,656(28.7)		무응답	5,432(9.4)
	무응답	7,314(12.6)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로 제시되었다. 말하기, 읽기, 쓰기의 총 3영역을 다루며, 1점 ‘매우 잘 한다’부터 5점 ‘매우 서툴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들은 역채점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별로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문항은 결혼이주여성이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가나 취미생활을 할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함께하는 대상이 모국인인지, 한국인인지에 대한 유, 무로 응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가나 취미생활,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서 귀하는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중 누구와 함께 합니까?”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을 의논 상대, 여가취미생활, 경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보고 이를 모국인과 한국인으로 재구성하여 0명부터 3명까지로 구분하였다. 0명일 때는 사회적 지원이 한 명도 없음을 의미하고, 많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가족관계에 있어 다음 각 항목(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질문되었다. 1점 ‘매우 만족’부터 5점 ‘매우 불만’까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가족관계와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상담 경험 유무

가족상담 경험 유무는 가족상담에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문항은 “귀하는 가족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로 제시되었다. 가족상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상담 받은 경험 없음’과 ‘상담 받은 경험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절차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가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Window 16.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의 전반적인 점수분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른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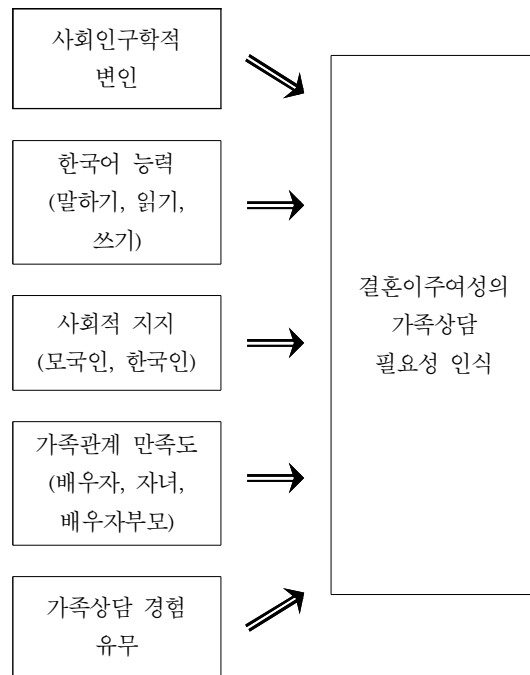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상담 필요성 인식에서의 차이가 나타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수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모델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델 2에서는 한국어 능력, 모델 3에서는 사회적 지지, 모델 4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 모델 5에서는 가족상담 경험 유무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결 과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먼저,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의 평균은 3.20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상담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한국어 능력의 총 평균은 9.49점으로 나타나,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말하기는 3.19점, 읽기 3.23점, 쓰기 3.06점으로

표 2.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

구분	M	SD	점수범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3.20	1.49	1-5점	
한국어 능력	말하기	3.19	1.09	1-5점
	읽기	3.23	1.11	1-5점
	쓰기	3.06	1.16	1-5점
전체	9.49	3.18	1-15점	
사회적 지지	모국인	1.18	1.14	0-3명
	한국인	1.55	1.15	0-3명
전체	2.72	1.32	0-6명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4.01	.91	1-5점
	자녀	4.41	.75	1-5점
	배우자부모	3.82	.96	1-5점
전체	12.20	1.32	1-15점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세 영역 중 읽기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총 평균은 2.72명으로, 사회적 지지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모국인은 1.18명, 한국인은 1.55명으로 나타나, 모국인보다 한국인이 사회적

지지원으로 그 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12.2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를 각각 살펴보면, 배우자와는 4.01점, 자녀와는 4.41점, 배우자 부모와는 3.82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그 중 자녀와의 만족도가 높고,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출신국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방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35.94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족 여성은 2.24점, 일본여성 2.89점으로 나타나 조선족여성과 일본여

표 3. 출신국가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

구분	M(S.D)	F	Duncan Test
조선족(a)	2.24(1.36)		
중국(b)	3.28(1.45)		
베트남(c)	3.84(1.28)		
필리핀(d)	3.93(1.11)	2535.94***	a/f/b/g/c/d/e
캄보디아(e)	4.05(1.19)		
일본(f)	2.89(1.19)		
기타(g)	3.58(1.35)		

*** $p<.001$

성은 대체로 가족상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편이었다. 그 외의 국가출신 여성들은 보통 이상의 평균점으로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캄보디아와 필리핀 출신의 여성들이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에서 말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지지에서 모국인, 한국인,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배우자,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5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정도는 Pearson's r 값이 .01~.36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부록 참조).

결혼이주여성의 변인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결혼이주여성의 변인에 따른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수들 중에 명목변수인 출신국, 배우자를 만난 방법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에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 결과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tor) 값이 10 이상이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Myers, 1990),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VIF 값이 1-5사이로 10이상이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델2에서는 한국어 능력의 하위영역, 모델 3에서는 사회적 지지, 모델4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 모델5에서는 가족상담 경험 유무를 추가로 투입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 많은 변인들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F=185.75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연령, 배우자의 학력, 결혼지속년수, 나이차, 자녀수, 배우자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를 만난 방법(결혼중개업, 친구 또는 동료, 종교기관)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13.9%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변인을 추가하였고,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F=201.39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모델1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학력과 본인의 취업 여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의 하위영역에서 말하기와 쓰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설명력은 17.5%로, 모델 1보다 변량이 3.6% 증가하였다.

모델 3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추가하였고,

표 4. 결혼이주여성의 변인별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공차 한계	VIF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02	-.10***	-.02	-.12***	-.02	-.12***	-.02	-.12***	-.02	-.10***	.260	3.849
학력	.02	.02	.09	.04***	.06	.04***	.05	.03***	.03	.02*	.701	1.426
배우자 학력	-.09	-.05***	-.08	-.04***	-.07	-.04***	-.07	-.04***	-.05	-.03***	.841	1.189
배우자취업여부 ¹⁾	-.04	-.01	-.03	-.01	-.02	-.01	-.01	-.00	.00	.00	.982	1.018
취업여부 ²⁾	.00	.00	.07	.02**	.06	.02**	.05	.02*	.04	.01	.798	1.253
결혼지속년수	-.08	-.24***	-.06	-.17***	-.06	-.16***	-.06	-.17***	-.05	-.13***	.314	3.190
나이차	.01	.06***	.01	.04***	.01	.04***	.01	.04***	.01	.03**	.425	2.353
자녀수	.10	.05***	.11	.05***	.11	.05***	.11	.05***	.08	.04***	.636	1.571
배우자부모와동거여부 ³⁾	.11	.04***	.10	.03***	.10	.04***	.10	.03***	.08	.03***	.933	1.072
결혼중개업 ⁴⁾	.39	.13***	.33	.11***	.32	.11***	.30	.10***	.22	.08***	.263	3.797
가족또는친척 ⁵⁾	-.00	.00	.06	.02	.06	.02	.05	.01	.03	.01	.374	2.676
친구또는동료 ⁶⁾	.16	.04***	.18	.04***	.17	.04***	.16	.04***	.14	.03**	.450	2.221
종교기관 ⁷⁾	.70	.17***	.45	.11***	.43	.10***	.42	.10***	.31	.07***	.395	2.534
기타 ⁸⁾	-.01	-.00	-.03	-.00	-.03	-.00	-.04	-.00	-.06	-.01	.816	1.225
한국어 능력												
말하기			-.16	-.12***	-.15	-.11***	-.15	-.11***	-.13	-.09***	.269	3.713
읽기			-.03	-.03	-.04	-.03	-.04	-.03	-.04	-.03*	.185	5.420
쓰기			-.12	-.09***	-.11	-.09***	-.11	-.09***	-.11	-.09***	.241	4.152
사회적 지지												
모국인					.01	.01	.01	.01	-.01	-.01	.826	1.210
한국인					-.05	-.04***	-.04	-.03***	-.04	-.03***	.813	1.231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08	-.05***	-.08	-.05***	.523	1.914
자녀							.06	.03**	.07	.04***	.708	1.412
배우자부모							-.02	-.01	-.01	-.01	.585	1.710
가족상담 경험 유무												
									.67	.23***	.926	1.080
R^2	.140		.176		.178		.180		.229			
Adjusted R^2	.139		.175		.177		.179		.228			
ΔR^2	.140		.036		.002		.002		.049			
F	185.751***		201.397***		182.105***		159.650***		206.799***			

* $p < .05$, ** $p < .01$, *** $p < .001$

가변수(dummy variable) : 1) 배우자 취업여부: 유=1, 무=0, 2) 취업여부: 유=1, 무=0, 3) 배우자부모와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4) 결혼중개업=1, 그 외=0, 5) 가족 또는 동료=1, 그 외=0, 6) 친구 또는 동료=1, 그 외=0, 7) 종교기관=1, 그 외=0, 8) 기타=1, 그 외=0.

그 결과 이 변수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82.105, p<.001$). 사회적 지지 중 한국인만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의 설명력은 17.7%로 모델 2보다 변량이 0.2% 증가하였다.

모델 4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변인에 가족관계 만족도 변인을 추가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변인을 추가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159.6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는 17.9%의 설명력을 보여, 모델3에 비해 설명력이 0.2% 증가하였다.

모델 5에서는 모든 변인을 통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경험 유무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변인은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F=206.799, p<.001$)을 미쳤고, 한국어 능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읽기의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모델 5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은 22.8%의 설명력을 보여, 모델 4보다 4.9%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 중에서 가족상담 경험 유무가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연령, 학력, 배우자의 학력, 결혼지속년수, 나이차, 자녀수, 배우자 부모와 동거 여부, 배우자를 결혼중개업, 친구 또는 동료, 종교기관

을 통해 만났을 때, 한국어 능력(말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지지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만족도, 그리고 가족상담 경험 유무로 검증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어리고, 본인의 학력이 높고, 배우자의 학력이 낮고, 결혼지속년수가 짧고, 나이차가 많이 나고, 자녀수가 많고, 배우자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을 경우,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낮고, 사회적 지원으로 한국인의 수가 적고,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불만족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가족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보통 정도로 인식한다. 이는 두 개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는 울산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5개 분야에 욕구를 측정한 오세걸(2010)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상담에 대한 욕구는 한국어 및 문화적응교육, 자녀양육·학습지원서비스 등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는 경기도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도를 조사한 김희정(2010)의 연구이다. 이 연

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가정생활 안정과 관련해서 의료·생계·주거비 지원이 가장 시급한 수요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상담은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연구 결과를 감안해서 볼 때,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한국사회에 적응에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교육이나 다문화가족 중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이고 가정상의 문제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는데, 조선족, 중국, 일본 출신 여성들은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출신 여성들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

이와 같이 일본 출신 여성들이나 조선족 여성들이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은 그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다른 국가 여성들에 비해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수준이 높고 한국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고 일본사람들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해 한국사람들과 비교적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김미옥, 2000), 일본 출신 사람들은 서양 출신의 사람들보다 한국어를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족 출신의 여성들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얻기 쉽다

고 할 수 있다(김이선, 2007). 다시 말하면, 언어적 거리나 문화적 거리는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장애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출신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권이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화적 충격이나, 오해 또는 사회통념상의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박명석, 1979), 조선족, 중국, 일본 출신의 여성들은 다른 국가 출신의 여성들보다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국가는 가족상담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고려해야할 우선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여성보다 다른 출신국 여성들이,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때,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결혼중개업이나 친구 또는 동료, 종교기관을 통해서 만났을 때,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조선족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적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고 이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김이선, 2007), 다른 국가 출신 여성들에 비해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의 경우를 보면, 연령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생활의 경륜이 적기 때문에 갈등 해

결에 미숙할 수 있고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타국에서의 문화에 대한 적응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학력이 높을 때는 여러 가지 욕구나 기대감이 작용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학력이 낮을 때는 배우자의 능력에 대한 불만족이나 소통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결혼생활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부부간 갈등의 소지가 많아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양육부담을 더 크게 인식할 수도 있다.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는 가부장적 전통을 지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다른 국가 출신 여성들에게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결혼생활에 갈등을 가져오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자를 스스로 만나지 않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들 업체는 국제결혼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한국남성에 대한 과대포장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급속도로 결혼을 추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맞선을 보고 한국 남성과 결혼에 이르는 데까지 불과 5-6일 정도만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조건이 중시 될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김오남, 2008). 따라서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생활에 진입하게 되면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부모나 친

구가 곁에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능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가장 낮은 여성들이 부부관계, 시댁과의 갈등, 친인척들과의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적응이 가장 낮아 언어능력이 결혼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가 서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소한 불만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이를 표현하기 어려워 관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낮은 한국어 수준을 감안할 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국어 상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그들을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 체계 확립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 지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한국인의 수가 적을수록 가족상담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사람들은 지지가 필요할 때 부족한 자원을 보상하는 맥락에서 상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장영임, 1999).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지지망의 규모가 더 작다(Goodman, Sewell, & Jampol, 1984).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 지원은 비공식적인 도움체계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 한국인과의 관계가 모국인과의 관계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함께 의견을 나누고, 여가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이주여성의 사회관

계를 넓히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은 가족관계 중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불만족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왔다(김오남, 2006, 2008;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서해정, 김형모, 2009; 설동훈 외, 2005; 양순미, 2006). 결혼배우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에게 초기에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들과의 관계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변인임을 유추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녀에게 더 큰 기대와 의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가족을 보다 잘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와 노력의 바탕이 되어 개선과 향상을 위해 가족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곱째,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은 상담 요청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결과(장영임, 1999)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상담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가족문제를 심각하게 겪었다는 사실과 관련될 수도 있고, 또 가족상담의 경험이 가족생활 적응에 좋은 결과를 미쳤다면 그것의 교육적 효과로 인해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상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그리 높지 않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상담에 대한 경험이 다문화가족 자신과 그 가족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언어의 능숙함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유도하는 요인이며 새로운 문화에 재정착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볼 때(송복희, 2007),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언어교육 지원은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출신국과 연령 등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재와 다양한 교수법, 초급부터 고급까지 차별화된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남아 출신 여성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한국어교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족여성들은 의사소통 자체에는 어려움을 덜 겪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이해와 함께, 가족관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하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는 자원으로, 특히 한국인이 그들의

의는 상대나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으로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지원서비스들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의논할 수 있거나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인 멘토링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와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배우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일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알고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적고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배우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만족도는 다문화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적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원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상담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다른 문제와 욕구로 상담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가족상담보다는 개인상담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실정이었다(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상담이 이루어지면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경험이 가족상담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그들이 상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가족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읍, 면과 같이 떨어진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가족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 모색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아니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0)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상담을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다른 관련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상담의 필요성 인식을 단순 응답 방식으로 측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다문화가족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등도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성이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이 가족상담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요인을 밝히는 이후의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어 가족상담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특성들을 적용하여 파악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상담의 영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아울러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을 살펴보고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이러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을 정책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심리학 분야의 연구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를 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계층적 측면과 젠더적인 측면에서 중첩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지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소수자집단으로서 거론될 수 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정든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에서 결혼을 통한 삶의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므로, 그들의 결혼생활에의 적응은 곧 한국생활에의 적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생활에의 적응을 돕고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지원 방식인 가족상담의 필요성 인식을 다룬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심리학적 연구로서의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정, 강복정, 이무영 (2011). 다문화가족상담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2(3), 225-245.
- 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체계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연구보고서.
- 김미옥 (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과제 종류 및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0, 217-252.

- 김영옥, 임진숙, 정상녀 (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지*, 13(3), 143-164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8, 33-76.
- 김오남 (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과주: 집문당*.
- 김이선 (2007). 제자리를 찾아야 할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젠더리뷰*, 4(1), 22-31.
- 김희정 (2010).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 (2011).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3(2), 7-231.
- 박명석 (1979).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Seoul, Korea: Han Shin Pub.
- 박정운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집*, 7, 31-62.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1.
- 법무부 (2011). *국내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총괄현황*. 서울: 법무부.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해정, 김형모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지*, 36(2), 359-389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희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송기범 (2010).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문화적 역량과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집*, 29, 40-69.
- 송미경 (2008).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여성연구논총*, 23, 41-51.
- 송복희 (2007).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가정생활교육 효과: 익산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농촌사회학회지*, 16(2), 151-179.
- 양순미, 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승민 (2008).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다문화가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세걸 (2010). 다문화가정의 지원실태와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pp.321-349). 서울: 한울.
- 이선주, 양애경, 장미혜, 최현미, 송성실 (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구축(I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윤정 (2010).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

- 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0(5), 370-378.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삶 그리고 인권: 2006~2009년 상담실적 분석. 서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10). 국내 다문화 연구와 다문화 상담 연구의 현황. 상담학 연구, 10(3), 1291-1304.
- 장명선, 장은애 (2010).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 보고서.
- 장영임 (1999). 문제의 심각도, 사회적 지지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상담요청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관련 종사자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9(4), 817-846.
- 최연실 (2011).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통합적 개선방안 탐색: 가족상담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61-93.
- 통계청 (2011). 2010년 혼인통계결과.
- 한재희 (2011). 한국적 다문화상담. 서울: 학지사.
- Goodman, S. H., Sewell, D. R., & Jampol, R. C. (1984). Ongoing to the counselor: Contribution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s to the decision to seek psychologic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3), 306-313.
- Myers, R. (1990). *Classical and modern regression with applications*(2nd ed.). Boston, MA.: Duxbury.
- 1 차원고접수 : 2012. 7. 30.
심사통과접수 : 2012. 8. 31.
최종원고접수 : 2012. 9. 28.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for the Needs of Family Counseling for Married Immigrant Women

Hyun-Su Kim

Youn-Shil Choi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awareness for the overall need of family counseling and aims at providing a direction of support for family counseling that is leveled at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2010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requency, distribu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demographic variables, Korean language skills, social support,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 and experience of family counseling were conducted in view that these were factors that affected awareness for family counseling, with a total of 58,072 immigrant women who came to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language skills, social support,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 the study revealed that subjects recognized the need for family counseling as moderate and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were also moderate. Social supporters did not exceed more than two people including from both Koreans and their country natives, and subjects were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s to their spouse, children, and parents in-law.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the nationaliti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regarding the need for family counseling. Third,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influence of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family counseling based on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Korean language ability, social support, satisfactory family relationships and previous experience of family counseling.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family counseling, awareness for the needs of family counseling

부록.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행복이 능력,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연령	1																										
2 학력	.15***	1																									
3 비우아 학력	.21***	.25***	1																								
4 비우아 취업여부	.11***	.05***	.09***	1																							
5 취업여부	.40***	.11***	.11***	.02***	1																						
6 결혼이혼인수	.54***	.21***	.13***	.04***	.33***	1																					
7 나이와	.01***	.29***	.04***	.00	.25***	.38***	1																				
8 자녀수	.05***	.15***	.01	.02***	.08***	.48***	.09***	1																			
9 비우아부모와 동거여부	.29***	.08***	.05***	.02**	.17***	.18***	.14***	.04***	1																		
10 결혼총개입	.40***	.28***	.03***	.00	.21***	.31***	.42***	.09***	.18***	1																	
11 가족 또는 친척	.09***	.04**	.02**	.01**	.05***	.08***	.08***	.02***	.05***	.40***	1																
12 친구 또는 동료	.16***	.04***	.01**	.00	.08***	.02***	.02***	.02***	.12***	.08***	.34***	.28***	1														
13 종교기관	.22***	.26***	.05***	.00	.04***	.38***	.27***	.31***	.01**	.20***	.17***	.15***	.15***	1													
14 기타	.02***	.05***	.04***	.01*	.04***	.03***	.05***	.04**	.02***	.12***	.09***	.08***	.05***	.05***	1												
15 일반가족	.32***	.17***	.01*	.01	.28***	.40***	.25***	.34***	.15***	.25***	.35***	.05***	.05***	.03***	.85***	1											
16 친구	.26***	.18***	.01*	.00	.24***	.34***	.20***	.12***	.13***	.24***	.15***	.04***	.04***	.03***	.85***	.85***	1										
17 친구	.25***	.15***	.00	.00	.22***	.29***	.20***	.08***	.12***	.22***	.26***	.05***	.05***	.03***	.79***	.89***	.89***	1									
18 조부모	.11***	.09***	.05***	.04***	.03***	.02***	.02***	.04***	.04***	.08***	.04***	.04***	.17***	.00	.12***	.20***	.11***	.11***	1								
19 친척	.07***	.04***	.05***	.05***	.08***	.10***	.20***	.04***	.01*	.20***	.04***	.01*	.01	.02**	.19***	.16***	.16***	.16***	.16***	1							
20 비우아와관계만족도	.12***	.02***	.12***	.12***	.16***	.04***	.08***	.03***	.04***	.04***	.01	.11***	.01	.04***	.05***	.05***	.05***	.05***	.05***	.05***	1						
21 자녀와관계만족도	.17***	.02***	.08***	.04***	.09***	.15***	.07***	.08***	.05***	.03***	.03***	.01*	.15***	.00	.05***	.07***	.07***	.07***	.07***	.07***	.07***	1					
22 비우아부모와관계만족도	.12***	.08***	.09***	.05***	.09***	.15***	.05***	.10***	.01	.01	.05***	.03***	.14***	.00	.03***	.04***	.08***	.11***	.09***	.09***	.09***	.09***	1				
23 가족상담 경험 유무	.22***	.01**	.01**	.12***	.13***	.14***	.11***	.11***	.15***	.08***	.05***	.07***	.02***	.15***	.12***	.12***	.13***	.08***	.03***	.02***	.02***	.02***	.02***	1			
24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39***	.05***	.04***	.02***	.22***	.28***	.25***	.04***	.18***	.25***	.04***	.02***	.04***	.38***	.3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p < .05. **p < .01. ***p < .001
 가변수(continuous variable) : 1) 비우아 취업여부-유무, 2) 비우아 학력-유무, 3) 비우아부모와 동거여부, 4) 결혼총개입-1, 2, 3, 4, 5) 가족 또는 친척 또는 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기타, 6) 친구 또는 동료-1, 2, 3, 4, 5) 가족 또는 친척 또는 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기타, 7) 기타

